

범준스님의

금강경 강의

-1-



- | | |
|-------------|----------------------|
| 〈금강경〉의 이해 - | 1. 〈금강경〉과 대승경전의 성립 |
| | 2. 〈금강경〉의 경명 |
| | 3. 〈금강경〉의 대의 |
| | 4. 〈금강경〉의 한역본 |
| | 5. 번역: 구마라집(鳩摩羅什) |
| | 6. 〈금강경〉의 주석서 |
| | 7. 〈금강경〉의 한국 전래 |
| | 8. 한국 조계종과 〈금강경〉의 관계 |

1. 〈금강경〉과 대승경전의 성립

1) 〈금강경〉의 성립 시기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초기에 성립한 산스크리트 원전의 존재가 확실한 경전이다. 성립 시기는 대략 AD 150-200 년간이다.

〈금강경〉이 초기 경전으로 추측되는 이유.

- ① ‘空(sānya)’이 등장하지 않는다.
- ② 소승, 대승의 표현이 없다.

2) 대승경전의 성립 배경

아쇼카¹⁾ 왕의 시대는 왕의 불법 귀의와 보호에 의해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즉 사리탑의 설립, 석존의 인연지의 기념탑 등이 조성되고 사원에는 광대한 장원이 기증되었다. 따라서 불교는 사원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귀족화되었으며, 재가 신자에게는 사원이나 승단에 대한 물질적 보시가 공덕이 있는 것으로 장려되었다.

1) 아쇼카: 인도 마가다 왕국 마우리아 왕조 3대 왕(재위 : B.C. 273~232). 인도 최초의 통일자인 찬드라굽타(Chandragupta)의 손자

그러나 BC 1세기경이 되면 이러한 불교의 자세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출현하는데 이들이 본래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는 대승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에 의해서 대승이라는 새 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담은 새로운 경전이 출현하게 된다. 이 경전들을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전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결집해서 집대성한 것이 대승경전이다.

3) 대승경전의 성립 시기 구분

① 초기 대승경전의 성립 시기: BC 1세기~ AD 3세기.

이때 최초로 성립된 경전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 반야부는 전체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으로 <금강경>, <반야심경> 등. 이들 경전에서는 空思想을 천명하고 바라밀행을 강조한다.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등도 초기의 경전에 속한다.

② 중기 대승경전의 성립시기: AD 3세기~ AD 5세기 중엽.

이때 여래장계의 경전과 유식계의 경전이 성립. 여래장계 경전으로는 <여래장경>, <열반경>, <승만경>등이 있고 유식계의 경전으로는 <해심밀경>, <유가사지론>등이 있다.

③ 후기 대승경전의 성립시기: AD 5세기 중엽~AD 13세기.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출 때인 13세기로 이때는 진언이나 만다라의 시대로 밀교계의 경전인 <大口經>, <금강정경>등이 편찬되었다.

④ <금강경>을 포함한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에 대한 반성 위에서 성립되었다. 부파불교 교단의 귀족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던 불탑 숭배사상을 부정하고, 불탑 숭배의 정신을 持經 숭배와 보시를 강조함으로써 불교를 대중화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대승경전에서 <금강경>의 위치

天台五示教(중국 수나라 천대 지의(天台智顚) 구분.

- ① 最初華嚴三七日(華嚴時)-21일 <화엄경>
- ② 阿舍十二方等八(鹿苑時)-12년 <아함경>
(方等時)-8년 <유마경>, <승만경> 등 대승경전
- ③ 二十一載談般若(般若時)-21년 <금강경>, <반야심경> 등 대승경전
- ④ 終談法華又八年(法華涅槃時)-8년 <법화경>, 3개월 <열반경>

※ 중관학파와 유가행파

[중관학파]

용수(龍樹 : Nāgārjuna, 150~250)의 저서 《중관론(中觀論)》을 근거로 하여 반야공관(般若空觀)을 선양한 학파로서 AD 3세기에 성립되었으며, AD 4세기에 성립되어 유식(唯識)을 설하는 유가행파(瑜伽行派)와 함께 인도 대승불교의 2대 사상이 되었다. 중국 불교의 삼론종은 인도 불교의 중관학파에 대한 중국 측 명칭에 해당한다.

중심사상

중관학파의 중심사상은 공(空)이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법유(法有), 즉 모든 개개의 존재에는 그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실체적인 자성(自性)이 있다고 하는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그러한 자성이 없는, 즉 무자성(無自性)·공(空)이기 때문에 현상이 성립되며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법유(法有)의 입장에서 서 있는 본질과 같은 것을 실체시(實體視)한다면 현상계의 성립과 변화는 설명할 수 없다고 중관학파는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서 무자성(無自性)이고 공(空)인 현상계의 개개 존재

는 다른 존재와는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조건 위에서 성립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용수는 이것을 연기(緣起)라 불렀다. 공과 연기는 곧 제법실상(諸法實相: 현상계의 개개 만물의 실제 모습)인 중도(中道)라고 주장하였다. 용수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저서인 《중관론(中觀論)》에 잘 나타나 있다.

학파 명칭의 유래

용수는 공과 연기를 무아(無我)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연기와 무아는, 《중론송(中論頌)》의 불생불멸(不生不滅) · 불상부단(不常不斷)의 8불(八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러 개념의 어느 한 편에만 집착하지 않는 입장에 선다 하여 중도(中道)라고도 불리며, 중관학파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유가행파]

무착(無着: Asanga, 300~390?)이 만든 대승불교 종파이다. 대승불교를 창시한 3세기 용수스님의 중관파와 함께 대승불교의 양대축이다. 3세기 용수는 반야경, 4세기 무착은 유가사지론을 널리 배포했다. 유가행파는 유식파(唯識派, Vijñānavāda 비즈냐나바다), 유식종(唯識宗), 유가행유식학파(瑜伽行唯識學派), 유식유가행파(唯識瑜伽行派), 유가불교(瑜伽佛敎)로도 불린다.

중심사상

유가행파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해심밀경(解深密經)》을 근본 경전으로 한다. 호흡을 조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등의 지관(止觀: 선정과 지혜) 수행을 통해 바른 이치(正理)와 상응(相應)하려고 하는 유가행(瑜伽行, Yoga, 요가)을 실천하였다. 유가행파는 유가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아뢰야식이라는 새로운 심식(心識)과 이

에 따른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중관파에서 주장된 반야의 공사상(空思想)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고, 일체의 존재는 심식(心識)의 변전이며 심식(心識)만이 실재라고 보는 유식설(唯識說)을 세워 대승의 교리적인 발전을 성취하였다.

유식설에서는 인간의 현실존재를 구성하는 여러 법은 실유(實有)가 아니며 그 실상(實相)은 공(空)인데, 오직 공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따라 현상차별의 상(相)이 현출(現出)할 수는 없는 일이며, 여러 존재가 현재 있는 그것처럼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기 공에 뒷받침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미 능력(可能力)인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종(種)이라 하고, 이는 순수한 정신작용으로서의 식(識)으로서 모든 것은 오직 이 식에 의해 나타난 것[唯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과 명칭의 유래: 순수한 정신작용을 체험하기 위해 지관[止觀-禪定) 수행과 요가(Yoga)를 수행해야 한다. 즉 유가행(瑜伽行, Yoga)의 실천가(瑜伽師)에 의해 조직, 계승되었다 하여, 유가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유가행파(瑜伽行派, Yogācāra)라고 한다.

참고: “유식(唯識)”에서 유(唯)는 “오직”을 뜻하며 식(識)은 의식(Consciousness) 또는 마음(Mind)을 뜻한다. 영어권에서는 유식을 흔히 "Consciousness only"라고 번역한다. 인도 불교의 유가행파에 대응하는 중국, 한국, 일본 불교의 종파로는 《십지경론》을 소의 논서로 하는 지론종(地論宗), 《섭대승론》을 소의 논서로 하는 섭론종(攝論宗), 《성유식론》을 소의 논서로 하는 법상종(法相宗: 자은종·유식종)이 있다.

2. <금강경>의 경명

<금강경>의 범어 원제는 <Vajrachedika-prajñāparamita-sutra>이다.

이 경을 처음으로 한역한 구마라집은 이를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이라고 번역했다. 흔히 이를 줄여서 <금강경> 혹은 <금강반야경>이라고도 부른다.

1) Vajra(바즈라) : 힌두교의 인드라 신이 사용한 무기. 금강저(金剛杵)

이 무기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 이 전통이 불교에 흡수되어 금강저(金剛杵)는 무명을 파괴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金剛’은 무명을 파괴하는 힘에 비유(metaphor), ‘般若波羅密’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즉, ‘般若’의 깊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 ‘金剛’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金剛을 體相用(三大)으로 설명하면,

① 體-堅固 반야의 體는 견고하여 괴멸되지 않고 영겁토록 존재한다.

또한 어떤 것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하다.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다.

② 相-光明 반야의 相은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추어 일체의 장애가 없다.

③ 用-銳利: 반야의 用은 예리하여 능히 일체 번뇌를 끊을 수 있다.

‘금강(Vajra)’은 금강저(金剛杵), 금강석(金剛石)을 의미하는데,

금강석이란 견고하고(堅), 밝게 빛나며(明), 날카로운(利)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두터운 무지(無智)라도 능히 파괴할 수 있으며,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리 끈질긴 번뇌라도 능히 절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보석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에 비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는 ‘바즈라’를 ‘다이아몬드(Diamond)’라고 옮겼으며, 이

에 따라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Diamond Sutra)’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예리해서 어둡고 끈질긴 무명을 잘라내고, 밝게 빛나는 지혜의 완성을 설하는 경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2) chedika(체디카): ‘절단하는, 끊을 수 있는’을 의미한다.

3) Prajñā(프라즈냐): ‘지혜(智慧)’. 범어 프라즈냐(prajñā). 妙智, 妙慧로 번역.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진실 된 지혜’ ‘모든 사물을 파악하는 지식’으로 최상의 지혜를 말하며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이다.

보통 말하는 판단능력인 분별지(分別智, vijñana)와 구별 짓기 위해 ‘반야(般若)’라는 음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무분별지(無分別智)라고도 한다.

이러한 지혜는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초월하여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진실한 지혜를 말한다.

대승 불교에서,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앞으로써 성불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른다.

4) paramita(파라미타): ‘波羅密’의 음역으로 ‘彼岸에 이른다’, ‘성자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다. 피안이란 이상향, 즉 보살의 도를 수행한 후 이르는 궁극의 경지를 총칭한다. 바라밀의 참뜻은 ‘향상한다, 전진한다, 발전한다’의 뜻으로 6바라밀이 대표적 수행방법이다.

5) sutra(수트라): ‘經’이라 번역하며, 본래 실, 끈 등의 의미였으나, 변하여 실로 꼳을 묶듯이 중생을 잘 보호하고 거두어 지닌다는 뜻이다.

범존스님의 금강경 1장

- ①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치, 중생의 근기에 부합.
- ② 부처님의 경지인 피안에 도달하는 방편 또는 지름길.

결론 : <금강경> 전체의 경명이 지니는 의미

- ①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 ② 견고하고 예리한 지혜로서 부처님의 경지인 피안에 도달하게 하는 경
- ③ 금강석처럼 번뇌를 자르고 피안에 이르는 지혜를 설한 경

3. <금강경>의 대의

破二執(我執, 法執), 顯三空(我空, 法空, 俱空=空空)

1) 아집(我執): ‘아집’이란 ‘나’에 대한 집착.

중생은 ‘나’에 얽매이는 존재. ‘아집’과 ‘아만’이 ‘나’의 보리심과 ‘참다운 자아(眞我)’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방해한다.

2) 법집(法執): ‘나’를 제외한 외부의 대상에 대한 집착.

대상과의 차별에 의한 우월의식, 계급의식.

- ① 객관인 사물과 현상이 실재한 것인 줄로 잘못 알고 고집.
- ② 교법에 얽매어 그것을 집착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

3) 아공(我空): ‘我執’을 벗어나 ‘나’의 실체가 포함을 아는 것.

- ① 인간은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불변하는 자아(自我)라는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 ② 분별하는 인식 주관의 작용이 끊어진 상태.

4) 법공(法空): ‘法執’에 대한 바른 이해로 존재하는 모든 대상 또한 포함을 아는 것.

물질적 현상이나 객관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정신 작용은 다 인연으로 모인 거짓 존재로서 만유의 본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

4. <금강경>의 한역본

<금강경>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경전으로 범어 원본 외에 한문과 티벳 번역은 물론 중앙시아어로도 번역되었고, 19세기에는 영어,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금강경>의 한역은 서기 402년에 시작된 구마라집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부터 서기 703년 이루어진 의정의 <불설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에 이르기까지 300년간에 걸쳐 六譯本이 이루어졌다.

육역본의 성립과정을 한역 연대순으로 보면,

- ① 姚秦 구마라집 역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402-412)
- ② 魏 천축삼장 보리유지 역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509)
- ③ 陳 천축삼장 진제 역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562)
- ④ 隋 삼장 달마굽다 역 <금강능단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605-616)
- ⑤ 唐 삼장법사 현장 역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648)
- ⑥ 唐 삼장사문 의정 역 <불설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서기 703)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금강경>은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²⁾가 32분으로 분단하여 <法會因由分 - 應化非眞分> 단락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따랐다.

2) 소명태자: 蕭統, 501-531, 중국 남조 양나라의 문학평론가. 양(梁) 무제의 장남으로 황태자가 되었으나, 즉위하기 전에 죽었다. 대표적인 저서로 제나라, 양나라의 대표적인 詩文을 모아 엮은 《文選》이 있는데 이는 당나라 이후로 문학 학습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

5. 번역: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

산스크리트어 kumārajīva(쿠마라지바)의 음사로 ‘동수(童壽)’라고 번역한다. 인도 출신의 승려 구마라염(鳩摩羅炎)과 구자국왕(龜茲國王)의 누이동생 지바(jīva)를 어머니로 하여 구자국(龜茲國)³⁾에서 태어났다.

7세 때 어머니와 함께 출가하고, 9세 때 어머니와 함께 계빈국(罽賓國)에 가서 반두달다(槃頭達多)에게 초기 경전을 배우고, 구자국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소록국(疏勒國)에서 아비달마(阿毘達磨)의 여러 논서와 초기 경전을 배웠다.

그 후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져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구마라집은 국사가 되어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 <大品般若經, 法華經, 金剛經, 維摩經, 阿彌陀經, 彌勒下生成佛經, 坐禪三昧經, 大智度論, 成實論, 中論, 十二門論, 百論, 十誦律> 등 35종 294권을 번역했다.

구마라집이 <반야경(般若經)>을 포함한 불교 경전들을 불교 본연의 뜻에 맞게 바르게 번역하면서 당시까지 중국에서 유행하던 격의불교(格義佛敎)⁴⁾의 폐단이 비로소 극복되었다.

3) 구자국(龜茲國): 산스크리트어 kucīna의 음사.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의 북쪽, 지금의 고차(庫車)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

4) 격의불교(格義佛敎): 중국에서 불교 수용의 초기 단계에, 인도 불교의 원전에 따라서 직접 그 원뜻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기반을 가진 전혀 다른 언어체계로 변환된 한역불전에 전면적으로 의거하며, 사상유형이 다른 중국고전과의 대비에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것을 격의불교라고 한다.

시대적으로는 진나라 말기부터 동진(317~420)에 걸쳐서 성행하고, 노장 현학이 주류를 차지한 사상계의 상황을 반영해서, 노장의 <무(無)>의 사상에 의해서 반야 경전의 <공(空)>의 사상을 해석하였다. 서진 말의 축법아(竺法雅)는 풍부한 중국고전의 교양을 활용해서 불교에 어두운 지식인을 교도하여 격의불교의 단서를 열었는데, 마침내 원전에서 멀어진 격의에 의한 <공(空)>의 연구는 많은 이론을

6. <금강경>의 주석서(註釋書)- 해설서

<금강경>에는 예로부터 8백여 가지의 주석서가 있다고 한다. 단일 경전의 주석서로는 그 수에 있어 단연 으뜸이다. 또 그 주석가(註釋家)를 보면 교가(敎家), 선가(禪家)는 물론이요 유가(儒家), 도가(道家)의 종사자들도 있어서 그 범위의 방대함은 실로 경탄치 않을 수 없다.

이 경의 주석서는 이미 인도인의 찬술도 있으며, 중국, 한국에도 수많은 종류가 전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7세기경부터 이 경에 대한 주소류(註疏類)가 저술되기 시작하여 메이지(明治) 시대에 이르면 이미 그 수가 100여 종에 이르게 된다. 인도에서 찬술된 주석서와 중국에서 번역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저자	저서명	번역자
무착	금강반야바라밀경론 2권	달마금다
무착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론송 1권	의정
세친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론석 3권	의정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 3권	보리유지
功德施	금강반야바라밀경파취착불괴가명론 2권	지바하

중국에서 저술된 것으로는 구마라집의 제자인 승조(僧肇, 374-414)에 의해 <금강반야경주(金剛般若經注)> 1권을 위시해서 수나라의 천태대사 지의(智顓, 531-597)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의소(義疏)>4권, 그 이후 唐나라에서 宋, 元, 明, 靑나라에 이르기까지 삼론(三論), 천태(天台), 화엄(華嚴), 선(禪)등 모든 종파의 학승들에 의해 많은 주석서

날고, 도안(道安)의 비판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후 5세기 초기에 쿠마라지바에 의해서 용수(龍樹)의 반야교학의 체계가 소개되기에 이르러 격의불교는 그 역사적 사명을 끝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중국불교는 본질상 격의적 성격을 띠었다.

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석서가 나왔다.

저자	저서명
원효(618-686)	금강반야경소 3권
경흥(681-)	금강반야경료간 3권
태현(753-)	금강반야경고적기 1권
함허(1376-1433)	금강경설의 1권
함허(1376-1433)	금강반야참문 2권
혜정(1685-1741)	금강경소찬요조현록 1권
연담(1720-1799)	금강경사기 1권
인악(1746-1796)	금강경사기 2권
공선(1767-1852)	금강경팔해경 1권
공선(1767-1852)	금강경팔강요기 1권

7. <금강경>의 한국 전래

이 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사기>의 ‘신라본기’권4에 신라 진흥왕26년(565)에 진나라의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이 불교의 경전과 논장 등 1,700여 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시대 진흥왕 37년(576)에 안흥법사가 법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능가경>, <승만경>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금강경>도 함께 전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의 원효스님이 지은 <금강반야경소(疏)>(3권)가 있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世宗) 때 시작하여 성종(成宗) 때에 완성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가 있고, 세조(世祖) 때 한계희(韓繼禧), 노사신(盧思愼) 등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諺解)>와 <금강경 육조언해(金剛經六祖諺解)> 등이 있다.

8. 한국 조계종과 <금강경>의 관계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임제종류의 선을 적통으로 하는 선불교 중심의 풍토이고 선불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의경전으로 삼는 것은 <금강경>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강경>을 숭상하게 된 내력은 조계산 수선사의 개산조인 보조국사의 비문에 “其勸人誦持 常以金剛經 立法演義”라 하여 <금강경>을 ‘대중에게 수지 독송하게 하여 항상 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국사의 저술에 <금강경>을 많이 인용했으며, 그의 전법수제자 진각국사 혜심은 고려시대에 유일하게 찬술되어 전해지는 <금강경찬>을 지었다.

<금강경오가해>가 우리나라 불교계의 강원에서 사교과의 교재로 편정된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 청허 스님의 제자 월담 때에 이르러 확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